

高句麗 工藝

— 金銅透刻冠을 中心하여 —

李 浩 官

一、序 論

三國이 鼎立하기 이전이나 이후부터 統一新羅를 거쳐 高麗王朝와 朝鮮王朝時代에 이르기까지 韓國美術品이 다양하고 우수한 點이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古墳 또는 遺蹟址 등에서 출토되는 金製品이나 銀製品, 玉製品, 靑銅製品, 鐵器製品, 漆器製品 등을 비롯하여 工藝製品 등에 있어 다양한 형태와 제조, 구조기술, 연마 및 도금기술 등과 아울러 彫刻裝飾性에 있어서도 한국공예미술의 특색과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古墳時代에 들어와서는 金屬工藝분야는 다른 분야별 보다도 복잡하고 다양한 형식과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工藝品類에 이르러서는 裝身具類, 馬具類, 武器類, 農器具類, 工器類 그리고 用器類 등 類別로 대별되거나 古墳內의 副葬品에서 나타나는 金屬工藝品은 종류면에서, 樣式面에서 본다면 그 수량과 종류, 양식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도 다량일 뿐만 아니라 또한 遺物 개개의 형태 역시 각종류마다 동일성과 同一性의 유형을 지니면서 나타나고 있고 아울러 彫刻, 製造, 樣式上的의 기술 역시 기본적인 면에서부터 벌써 高度의 기술로 이루어

짐도 알 수 있다. 그것은 高熱에 용해하여 주조하는 기술, 금속을 단련시켜 강도가 강한 얇은 금속판을 제조하는 기술, 금속판에 透彫를 하는 기술 조금기술, 그리고 鐵, 銅 등에 금과 은을 合金하는 기술이나 도금하는 기술 등은 고도의 기술과 수법을 발휘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이 정립한 이후 三國의 上流계급들은 金銅으로 만든 冠, 耳飾, 팔찌 등 裝身具를 패용함과 동시에 金屬器의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이와 같은 유물들은 각각 각자의 古墳에서 피장사의 副葬品으로 발견출토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형식과 기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金屬工藝品 중 高句麗 古墳 및 遺蹟址 등에서 출토수습된 몇몇의 예를 들어 이를 중심하여 考察해 보고자 하며 그것은 지금까지 高句麗古墳에서 出土된 遺物이 百濟나 新羅의 古墳 및 遺蹟址에서 출토된 것에 비해 양적으로 많지 않아 정확한 金屬工藝品 전반에 관한 大略의 유형과 樣式, 技法 등을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없었고 반면 구체적으로 究明整理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지 일부 遺物만으로서 高句麗의 金屬工藝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인 면과 合金, 도금, 조금, 透彫에 대한 우수성을 보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심도 넓게 보아온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일부면만을 언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는 바이다.

그러나 筆者는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평양부근 土城址와 古墳 등에서 出土된 透刻草花紋金銅冠과 평양 중화군 眞坡里一號墳에서 출토된 金銅透刻龍鳳紋冠形裝飾 등 遺物에 대하여 再檢討하며 소개하고자 하는 바이다.

二、金銅透刻龍鳳紋冠形裝飾金具(圖一)

平安南道 中和郡 眞坡里 一號墳內에서 出土된 폭 二五cm의 것으로 그 형태는 透刻으로 彫飾된 비행기의 尾翼 같은 金銅板을 맞붙여서 모자같은 형태로 된 것으로, 중앙에는二个의 太周와 細周로 된 圓圈內에 돌



圖 1. 金銅透刻龍鳳紋冠形裝飾金具

飾金具의 외곽 周緣部와 下部 周緣部에는 五七개의 連珠紋帶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透刻紋이 조식된 裝飾金具의 뒤에는 비단벌레 걸날개를 붙여서 도금된 金色紋樣을 영롱한 오색의 빛이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이 특징으로 당시 高句麗의 透刻技術과 彫刻技術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걸작의 작품이다. 발견 당시의 遺物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① 이 透刻金銅冠 뒤에는 1cm 두께의 같은 형태의 木板을 부착하였고 金銅冠과 木板 사이의 周緣帶에는 비단벌레의 날개를 붙여서 같았었고 또한 三足鳥가 透刻彫飾된 중앙의 珠紋 圓圈帶 밑에는 絹布를 부착하였던 ② 흔적이 있었다고 하며 교란된 石室 內에는 몹시 단단하고 부식된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하나의 透刻金銅冠 일부의 잔존 부분이 있어 한쌍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상의 透刻龍鳳紋冠形裝飾金具에 대하여 여러 學者들과 發表된 論文이나 報告書 등에 의하여 보면 그名稱 자체에도 여러가지로 불리우고 있

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용도에 있어서도 여러면으로 추측하고 있는 바 이를 대략 소개하면 명칭 자체에서 만도 透刻龍鳳紋金銅冠形裝飾 ③으로 보는 것과 金銅透刻龍鳳紋冠形裝飾 ④ 金銅透彫玉虫羽飾金具 ⑤ 金銅透彫雲鳥模樣的 金具 ⑥, 日像流雲紋透彫裝飾의 金銅製冠帽 ⑦, 金銅透彫製品 ⑧, 金銅太陽形透刻裝飾品 ⑨, 金銅透彫金具 ⑩, 透刻龍鳳紋金銅冠形 ⑪ 등이 裝飾에 대한 확고한 명칭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에서 주목되는 것은 出土當時에 이 裝飾과 同一한 형태의 木板이 부착되었다는 점과 또한 중앙의 三足鳥가 透刻彫飾된 圓圈 밑에는 絹布를 부착하였던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百濟, 新羅, 伽倻 등 古墳에서 출토된 金冠 또는 金銅冠 및 靑銅冠에 는 지금까지 출토 例로 보아 木板이 붙어 있었다는 흔적이나 實例가 전 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앙의 圓圈內에 굵은 線의 圓圈과 가는 線의 圓圈 사이에 三足鳥를 중심하여 二개의 珠紋을 배치하였다는 것은 가장 주목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三足鳥가 太陽을 상징하는 새이라면 이와 대칭되는 반대쪽에는 이 冠形裝飾과 同一形의 金銅冠形裝飾을 갖고 있었다고 추측되며 그곳에는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가 같은 圓圈內에 透刻으로 彫飾되고 주위의 넓은 空間에는 역시 鳳凰과 蟠龍 二마리를 배치하였던 冠形裝飾이 있었다고 본다.

圓圈內에 二個의 珠紋帶를 들렀다 하는 점은 어떤 裝飾性에서 우연히 배치하였다고는 보지를 않는 바이다. 그것은 高句麗 古墳壁畫에 있어서 이미 前期(三〇〇~四五〇)서부터 中期(四五〇~五五〇), 後期(五五〇~六五〇)에 이르기까지 日月星辰圖와 四神圖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로 볼때 二連珠紋은 太陽을 중심한 二方向 또는 二支를, 아니면 星宿圖에 의한 二宮을 表示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圖二).

前期 古墳에서 日月星辰圖와 四神圖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① 高山里第九號墳

平南道大同郡林原面高山里 壁畫의 四神圖

- ② 八青里壁畫古墳
平南道大同郡
大寶面八青里
壁畫의 四神圖
- ③ 天王地神塚
平南道順川郡
北倉面松溪里。
天井에 日月、
星宿、天地神、
怪獸
- ④ 遼東城塚
平南道順川郡
北倉面龍下里
唐平洞壁畫의
四神圖
- ⑤ 藥水里壁畫古墳
平南道江西郡江西面藥水里
天井에 日月、星宿圖、四神圖
- ⑥ 蓮花塚
平南道江西郡普林面肝城里
天井에 日像圖
- ⑦ 雙楹塚
平南道龍岡郡龍岡面安城里
天井에 日月圖、四神圖壁畫
- ⑧ 大安里第一號墳
平南道龍岡郡城巖面大安里
天井에 日月、星辰、四神圖
- ⑨ 梅山里四神塚



圖 2. 圓圈內 12個連珠紋과 三足鳥

- 平南道龍岡郡大代面梅山里
壁畫의 四神圖
- ⑩ 德興里壁畫古墳
平南道大安市德興里
天井에 日月、星辰圖
- ⑪ 三室塚
中國吉林省輯安縣如山南麓
壁畫의 四神圖
- ⑫ 安岳第三號墳(冬壽墓)
黃海道安岳郡龍順面柳順里
天井에 日月、星辰圖
- ⑬ 伏獅里壁畫古墳
黃海道安岳郡大遠面伏獅里
天井에 日、星、雲、神仙圖
- 中期 古墳에서 日月、星辰圖와 四神圖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 ① 環紋塚
中國吉林省輯安縣下羊魚頭
天井에 環紋과 日月
- ② 角抵塚
中國吉林省輯安縣如山南麓
天井에 北斗七星을 포함 七角의 星座、日月을 나타내고 있음。
- ③ 舞踊塚
中國吉林省輯安縣如山南麓
天井에 北斗七星을 포함 七角의 星座
- ④ 鎧馬塚
平南道大同郡柴足面魯山里
天井에 日像圖
- ⑤ 湖南里四神塚

平南道大同郡紫足面湖南里
壁畫의 四神圖

⑥ 江西大墓

平南道江西郡江西面三慕里
壁畫의 四神圖

⑦ 星塚

平南道龍岡郡新寧面新德里
壁畫의 四神圖 天井에 星辰圖

後期 古墳에서 日月 星辰圖와 四神圖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① 通溝四神塚

中國吉林省輯安縣如山南麓

壁畫의 四神圖、天井에 日月、神仙、怪獸圖

② 通溝第四號墳

中國吉林省輯安縣大王村

壁畫의 四神、日月像圖

③ 內里第一號墳

平南道大同郡紫足面內里

天井에 三足鳥와 日月像圖

④ 眞坡里第一號墳

平南道中和郡東頭面眞坡里

壁畫의 四神圖、雲紋、忍冬紋、蓮花紋

이상의 古墳 등에서 日月 星辰圖와 四神圖가 나타나는 것은 安岳第三號墳(冬壽墓)을 비롯하여 후기의 通溝四神塚 및 眞坡里一號墳에 이르기까지 초기 古墳에서부터 후기 古墳에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즉 太陽을 나타내는 日像은 三足鳥 또는 채색동심원 등으로 벽화에서는 표현하고 있고 달은 두꺼비(蟾蜍)로 나타나거나 두꺼비와 토끼(蟾兔)로 표현하여 月像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것은 日月과 함께 天體를 상징하는 星辰、星宿圖 등은 中國 漢代에 유행되었던 것이었지만 高句麗 古墳에서

는 前期、中期、後期를 통하여 盛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裝飾金具의 중앙부의 圓圈內에 위치한 三足鳥를 중심해 一二个의 連珠를 배치한 것은 예사로이 배치한 것이 아니라 前述한 바와 같이 東西南北을 표시한 靑龍、白虎、朱雀、玄武 등과 유관하여 사방을 나타내는 四方位에 따라 一二次位、一二千支、星宿圖의 十二宮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新羅에서는 一二次生肖의 사용예를 보면 眞德王陵(六四七~六五三)의 護石에 彫飾한 獸首人身立像의 例를 비롯해 聖德王陵(七〇二~七三六)、景德王陵(七四二~七六五)、憲德王陵(八〇九~八二六)、興德王陵(八二六~八三六)、金庾信將軍墓와 掛陵 등에서 보이고 대략 七세기 중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高句麗는 四神圖와 日月 星辰圖를 四세기 중엽인 安岳三號墳(冬壽墓三五七年)부터 七세기 중반인 眞坡里一號墳、通溝四神塚 등에까지 全時期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眞坡里一號墳내에서 발견된 裝身金具의 三足鳥와 그 周緣의 一二連珠는 역시 太陽神을 숭배하는 民族으로 太陽鳥의 지킴과 國王의 권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太陽을 중심으로 한 方位와 方位자와의 깊은 관계를 추측하게 된다. 그리고 발견 당시부터 木板을 金具의 후면에 부착하였다 함은 公州武寧王陵에서 발견된 王妃의 頭枕에서 나타나는 瑞鳥圖를 비롯한 天蓮花와 天人像 등을 龜甲紋 內에 표현한 것 등과 비교하여 볼 때 日像과 月像의 一雙을 갖춘 被葬者의 頭枕의 兩側에 마구리 裝飾金具로 보는 바이다.

또한 東明王陵 부근의 高句麗 遺蹟中 第一六號墳에서 출토된 金銅으로 된 半圓形의 裝飾二개(插圖一、二)가 출토된 것으로 볼 때 더욱 皮장자의 頭枕마구리장식 금구로 본다. 제一六호분에서 출토된 길이 一一·三cm、높이 五·九cm、두께八cm의 반원형의 透刻金銅裝飾品二個(⑭)는 그 內部를 火焰부너로 정교하게 透刻하고 周緣部에는 나무를 대고 있었다는 점이나, 나무 부분은 몹시 부식된 일부분만이 남아 있었고 金銅의 透刻部分도 심히 酸化되어 있어 그 일부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시기적으로도 혹자는 이 裝飾金具를 六세기경으로 보고 또한 頭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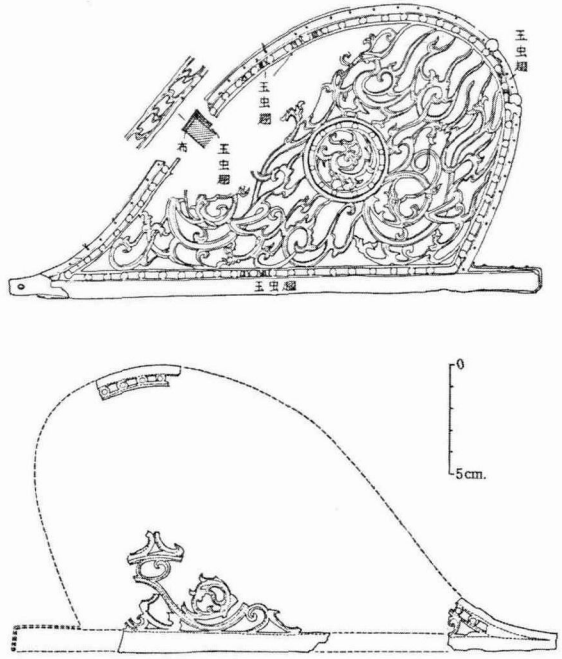


插圖 1. 眞坡里一號墳出土 金銅龍鳳紋裝飾金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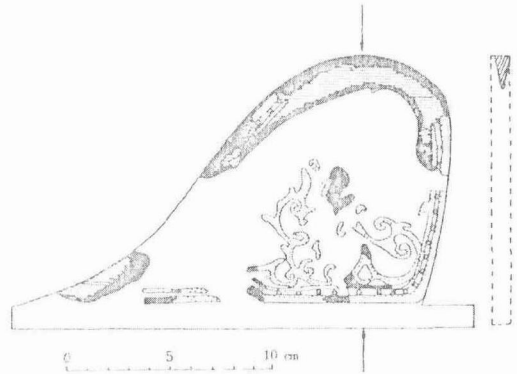


插圖 2. 東明王陵部近 第一六號出土 金銅半圓形裝飾

로도⑮ 추측하였던 예가 있고 또 혹자는 眞坡里一號墳의 壁畫內容에 따라 裝飾金具를 七세기로 본⑯ 견해도 있는 바 筆者는 후기 古墳에 속하는 眞坡里一號墳의 單室墓의 羨道나 玄室의 主壁 등에 守門將(四天王像)과 四神圖 그리고 하늘을 질주하는 纒雲紋과 忍冬、蓮花와 樹木이 바람에 날리는 듯 壁面을 화려하게 裝飾하고 있고 그 書法 역시 中國의 六朝風의 繪畫樣式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때 三足烏가 透刻된 頭枕裝飾手法도 中國 六朝樣式의 金銅彫刻을 받아들였다고 본다.

三、金銅製透刻寶冠

一九五八年 평양시 청암리 土城 남단에서 金銅製透刻寶冠(圖三)이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遺品이 있다.⑰

飾二개를 세우고 있다. 또한 大輪의 左右 양측에 각 一개씩의 웃고름을 묶어서 늘어뜨린 형으로 된 金銅板의 수식을 늘어뜨려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을 갖춘 金銅透刻冠의 立花飾光背形의 火焰紋樣은 中國의 北魏 正光五年銘(A, D, 五二四) 金銅彌勒立像(圖四)의 光背에서 볼 수 있는 火焰紋樣과 유사하고 또한 만주 증안현 通溝第五號墳 內에서 그려진 壁畫의 木葉紋(插圖三) 등에서 보이는 紋樣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만 명칭 자체에서 金銅透刻冠⑱、金銅透刻裝飾寶冠⑲、金銅透刻寶冠裝飾⑳、머리띠형 金銅冠㉑ 등으로 명칭을 붙여왔으나 그 사용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언급한 바가 없었고 다만 명칭 자체로서 여러가지로 冠、冠裝飾 등의 개념으로 불려져 왔다.

이와 같은 金銅透刻冠을 살펴 볼 때 大輪 左右에 각 一개씩 웃고름을 묶어서 늘어뜨린 모양의 수식이나 大輪 위의 透刻으로 된 火焰紋樣의 立花飾 등으로 이루어 보아 일반적으로 상용되었던 寶冠보다는 佛像의 頭

이에 대하여는 출토될 당시의 발굴과정과 遺蹟、遺溝의 형태、實測值 등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자료가 발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으나 그들이 간단히 발표한 내용과 사진에 의하여 살펴보면 金銅透刻冠은 넓은 大輪을 갖추고 大輪의 하단에는 連珠紋帶를 둘러고 그 위에는 忍冬唐草紋을 透刻으로 彫飾하였다. 大輪 위에는 佛像의 光背에 나타나 있는 火焰紋樣과 유사한 透刻한 立花飾을 五개 세우고 있고 따로 火焰받침 위에 꽃모양의 立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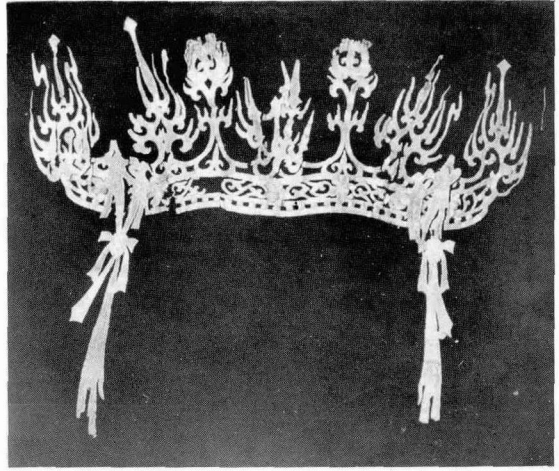


圖 3. 金銅製透刻寶冠

部에 사용되었던寶冠으로 보는 바이다.

그것은 新羅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古墳에서 출토된 金冠들과 金銅冠 등의 양측에 늘어뜨린 수식은 마디마디를 環形으로 연결하여 자유로히 움직일 수 있는 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나 이 金銅透刻冠의 수식은 옷고름 모양의 金銅板을 유달리도 길게 늘어뜨

려 고착되어 있어 머리를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데 불편을 주는 고정된 수식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儀式用이나 一般의 상용으로서는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되었던 金銅冠이나 寶冠과는 달리 고정된 어떤 예배 대상의 佛像 등의 寶冠으로 쓰여졌다고 본다.

더욱이 출토된 장소가 청암리토성 남단이라 함은 이 부근 즉 土城址 內에 대규모의 高句麗 建物址와 伽藍址의 하나인 八角堂址를 갖춘 청암리寺址가 一九三八年에 發掘調査되어 이미 널리 學界에 알려져 있는 바 이 建物址와 寺址 등과도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高句麗 古墳壁畫에서 나오는 人物圖에서 보려는 특히 주목되는 점이 있는 바 그것은 하나 같이 壁畫의 主人公이나 주변 인물에 金銅冠이나 金冠을 쓰고 있는 實例가 전혀 보이지 않고 白羅冠이나 靑羅冠, 緋羅冠 또는 幘과 折風, 鳥羽冠 등의 冠帽과 특히 楸安의 通溝五號墳, 通溝四



圖 4. 金銅彌勒佛立像
〈北魏 正光五年銘(524) 高: 7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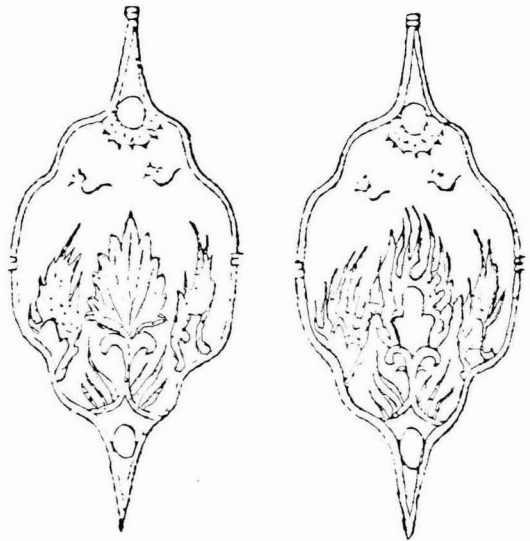


插圖 3. 通溝第五號墳壁畫中 木葉紋圖

神塚 등 壁畫에서 冕旒冠과 유사한 冠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三가닥의 鳥翼形의 형태를 갖춘 冠形裝飾이 중국 楸安현의 高句麗 積石塚에서 발견된 二個 鬘으로서 冠이나 冠飾이 발견된 예는 거의 없다. 이 積

石塚에서 발견 출토된 三가닥의 鳥翼形冠形裝飾과 유사한 것은 鎧馬塚의 壁畫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高句麗는 小獸林王二年(A, D, 三七二)인 四세기 후반에 이미 前秦과 국교를 개설하면서 佛敎를 받아들였던 사실과 그 후 長壽王(A, D, 四一三~四九一) 때인 四七二年에 平壤으로 천도한 후 三國이 統一될 때까지 佛敎의 융성과 많은 遺蹟을 平壤을 비롯한 高句麗領土內에 남겼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 발견된 중국 길림성 증안현 장천리 一號墳의 前室天井面의 壁畫에서 보이는 如來像, 脇侍菩薩像, 飛天像 등과 예배인물 등을 壁畫로 나타내고 또 壁畫 자체의 내용이 佛寺의 佛堂을 생각하게 되는 壁畫가 있는 점²³⁾과 그리고 平安南道 大安市 德里에서 발견된 永樂一八年(A, D, 四〇八)의 銘文이 墨書된 五세기 初에 해당되는 壁畫古墳에서 阿舍經에 나오는 「釋迦文佛弟子……」라는 銘文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으며 또한 六세기 후반에서 七세기 초에 걸치는 후기 古墳에 속하는 眞坡里二號墳의 壁畫內에서 四天王像이 있는 점²⁴⁾등으로 보아서 金銅透刻寶冠은 佛像의 寶冠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韓國 古代佛像

① 金銅彌勒半跏像(圖五)

三國時代, 國立中央博物館

② 金銅觀音菩薩立像(三陽洞出土)(圖六)

六~七세기 國立中央博物館

③ 瑞山磨崖三佛像脇侍佛(圖七)

六세기 忠清南道 瑞山郡

④ 金銅觀音菩薩立像(圖八)

七세기 國立中央博物館

⑤ 金銅菩薩三尊佛像脇侍佛(圖九)

六~七세기 黃圭董

⑥ 慶州南山神仙庵磨崖菩薩半跏像(圖一〇)

八세기 慶州南山 神仙庵

⑦ 石窟庵菩薩立像(圖一一)

八세기 慶北月城郡 石窟庵

등의 대략을 들 수 있으며

中國 佛像으로는

① 金銅交脚菩薩像(圖一二)

北魏 神龜元年(五一八年) 銘

② 石造半跏思惟像(圖一三)

北魏 五一二~五三四年

③ 石造交脚菩薩五尊像(圖一四)

東魏 元象元年(五三八年) 銘

④ 石造半跏思惟像(圖一五)

東魏 武定二年(五四四年) 銘

⑤ 天保三年銘石造彌勒菩薩立像(圖一六)

北齊 五五二年

⑥ 金銅菩薩倚像(圖一七)

北周 五五七~五六五年

⑦ 天和元年銘石造菩薩立像(圖一八)

北周 五五六年

⑧ 石造半跏思惟像(圖一九)

北周末 隋初 五六五~五九〇年

四、金銅透刻草花紋冠

등이 있다.

日帝 때 平壤 부근에서 發見된 이후 日本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는 透刻

草花金銅冠은 高句麗의 金銅冠形에 속하는 유일한 遺品の 하나이다.

이 金銅透刻草花紋冠(圖二〇)은 頭上에 쓰는 가는 메위에 풀과 같은

草紋과 꽃무늬를 透刻한 二個의 金銅板을 가는 메위에 부착시켜 세워 끈



圖 5. 金銅彌勒半跏像



圖 6. 金銅觀音菩薩立像
〈6~7세기 高 20.7cm, 國博〉



圖 7. 瑞山 磨崖三尊佛像
〈6세기 高 2.8cm〉



圖 8. 金銅觀音菩薩立像
〈7세기 高 11.8cm, 國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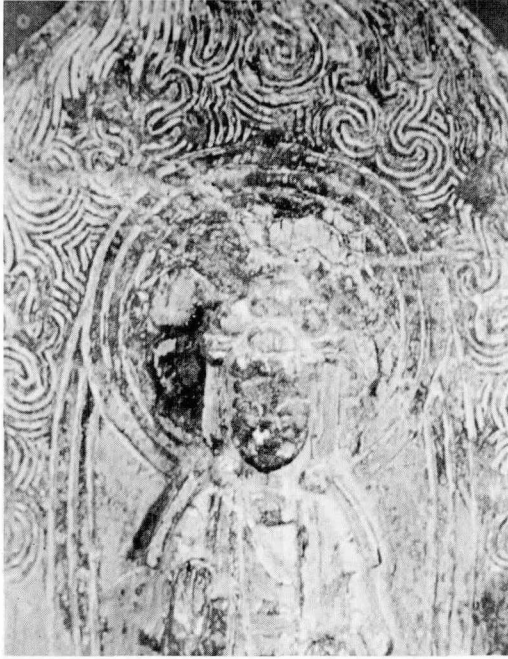


圖 9. 金銅菩薩三尊像脇侍佛
〈6~7세기 高 8.8m, 黃圭董藏〉



圖 10. 慶州南山神仙庵 磨崖菩薩半跏像
〈8세기 高: 1.9m〉



圖 11. 石窟庵 菩薩立像
〈8세기 高: 2.1m〉



圖 12. 北魏神龜元年(518)銘 金銅交脚菩薩像
〈高: 16.3cm〉



圖 13. 石造半伽思惟像
〈北魏 512~534 年 高 65cm〉



圖 14. 東魏 元象元年(538)銘 石造
交脚菩薩 五尊像 〈高 66.5 cm〉



圖 15. 東魏 武定二年(544)銘 石造半
伽思惟像 〈高 54.4 cm 書道博〉



圖 16. 天報三年銘 石造菩薩立像
〈北齊 552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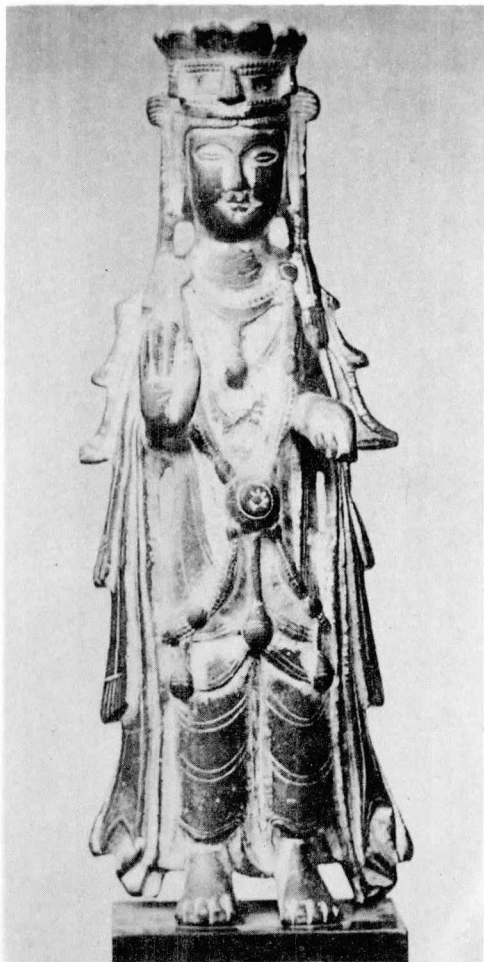


圖 17. 金銅菩薩倚像
〈北周 557~565年 高 17.2cm〉



圖 18. 天和元年(556)銘 石造菩薩立像
〈北周 書道博〉

부분이 서로 닿게 한 반타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金銅冠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아무裝飾이 없이 가는 테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서 前述한 金銅透刻龍鳳紋冠形裝飾이나 大輪 위에 五個의 立花飾을 세우고 꽃모양의 二個의 立花飾을 세운 金銅透刻冠을과는 달리 그 透刻鍍金方式이 투박하면서도 草花紋의 彫飾方法이 다른 二個의 透刻彫飾方法 보다 힘차면서도 굵게 나타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發掘 당시의 자세한 기록과 位置 및 實測値를 입수하지 못해 확실한 金銅透刻冠으로서의 사용여부가 확인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 高句麗 古墳 內에서 발견된 遺品 中 가장 冠形을 갖춘 간단하고도 소박한 것의 유일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金銅透刻冠 만으로 볼 때 百濟, 新羅 및 北方 시베리아系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것으로 韓國 內에서 출토되는 金銅 및 金銅冠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형태의 것인 바 여러가지 추측을 낳게 할 수 있는 바도 되나 金銅透刻冠 자체만으로서 考察하여 볼 때 이 金銅透刻冠은 高句麗의 유일한 예의 하나로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五、結 言

이상의 三가지 金銅透刻冠形裝飾을 考察하여 본 바 高句麗의 冠形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이론과 주장이 있겠으나 아직까지 百濟地域의 羅州출토 金銅冠이나 武寧王陵 출토 冠形裝飾과 新羅地域의 義城塔址 출

토의 金銅冠, 梁山 夫婦塚 出土의 金銅冠, 昌寧 校洞 出土 金銅冠 그리
고 慶川 金冠塚 金冠, 瑞鳳塚 金冠, 金鈴塚 金冠, 天馬塚 金冠, 皇南大塚
(九八號古墳) 出土 金冠 등과 같이 확실한 金冠 및 金銅冠의 형식을 갖
춘 것이 古墳 內에서 출토되거나 壁畫 內에서 발견되지 않아 高句麗의
冠形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실지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眞坡里一號墳에서 출토된 金銅透刻冠形裝飾은 앞에서 언급하
였다 시피 日像을 표시한 三足鳥와 圓圈의 그 周緣에 一二个의 連珠를
돌리고 그 밖에 鳳凰과 蟠龍紋을 透刻한 장식의 背面에 玉虫의 날개를
같이 彫飾되어 있고 또한 絹布를 부착하였던 흔적이 있는 점 그리고 金
銅透刻冠裝飾과 동형으로 된 얇은 木板이 透刻冠形에 부착되어 있는 점,
발견되지 않았을 뿐 또 하나의 月像을 나타내는 두꺼비를 彫飾하였다고
추측되는 1조로 된 頭枕 양측의 마구리板으로 보며 이것은 일상생활에
사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被葬者를 위한 것이나 儀式이나 禮式



圖 19. 石造半跏思惟像
(北周末 隋初 565~590年 高 48.2cm)

虫飾鐙子, 杏葉, 재갈 등에서 裝飾되고 있고 日本에서는 法隆寺 所藏의
佛龕의 하나인 玉虫厨子を 비롯하여 正倉院 所藏의 玉虫飾矢, 玉虫飾刀
子 등의 예를 들수 있는 바 이와 같은 遺物들은 역시 儀式 때의 儀器나
裝飾品 또는 古墳 內에 埋葬되는 被葬者를 위한 副葬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九八號南墳에서 출토된 馬具類에는 透刻玉虫飾鞍橋와 馬具類
이외에도 金銅製鞍具 二具와 木心黑漆製鞍橋 三具 등이 동시에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역시 사용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儀式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같
이 副葬品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大輪 위에 五個의 火焰紋立花飾과 꽃모양의 二個의 立花飾을
갖추고 左右에 옷고름을 묶는 모양의 긴 수식을 한 金銅透刻冠 역시 예
배의 대상인 佛像의 寶冠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본다. 단 한가지 일본
으로 유출되었다하는 반타원형의 草花紋透刻冠만이 王冠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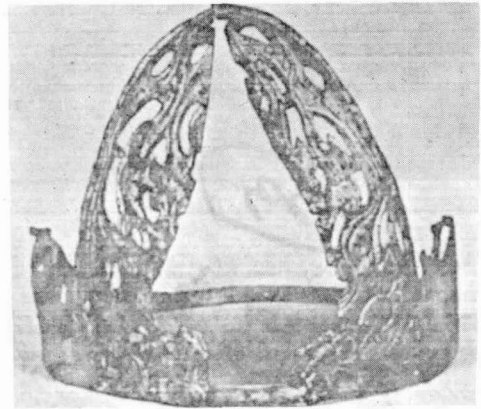


圖 20. 透刻草花紋 金銅冠

때 어떠한 儀器나 器
物로 사용되었던 것
이 아닌가도 생각된
다.

지금까지 玉虫의
날개로 彫飾된 遺物
몇가지로 보면 高句
麗의 金銅透刻龍鳳
紋冠形裝飾을 비롯
하여 新羅의 金冠塚
出土의 玉虫飾 등과
玉虫飾鞍橋, 玉虫飾
綾羅, 皇南大塚(九
八號南墳)에서 출토
된 玉虫飾鞍橋, 玉

도 당시 高句麗社會에 상당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사용하였던 金銅透刻冠으로 생각된다.

高句麗의 冠帽에 대한 記錄을 살펴보면 가장 오래 된 것이 魏書를 비롯하여 南齊書, 三國志 高句麗傳, 隋書 高麗傳, 北史 高句麗傳, 舊唐書 高麗傳, 林下筆記 春明逸事 등에서 보이는 바

○魏書 卷一〇〇 高句麗傳

官名有諷奢 大奢 大兄 小兄之號 頭著折風 其形如辯 旁插鳥羽 貴賤有差

○南齊書 卷五八 高麗國傳

高麗俗 服窮袴 冠折風 一樑 謂之幘 知讀五經 使人在京師 中書郎工融戲之曰 服之不衷 身之災也 頭上定是何 答曰 此即古辯之遺像也

○三國志 魏書 高句麗傳

大加主簿 頭著幘 如幘而無后 其小加著折風 形如辯

○上同書 異域傳 高麗條

其冠曰蘇骨 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 其有官品者 又插二鳥羽於其上以顯之

○隋書 卷八一 高麗傳

人皆皮冠使人加插鳥羽 貴者冠用紫羅飾以金銀

○北史 卷九四 高句麗傳

人皆頭著折風 形如辯 士人加插二鳥羽 貴者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舊唐書 高麗傳

衣裳服飾 唯王五綵 以白羅爲冠 白衣小帶 其冠及帶 威以金飾 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 及金銀爲飾

○林下筆記 卷二八 春明逸事

折風巾者 東國之笠子也 古則用陶後變爲竹 而前簷旌以鐵吹 風吹飄揚 故稱之也

등이 있다.

이상의 古文獻 記錄을 통하여 본다면 高句麗에서는 辯과 鳥羽插飾, 折風, 幘, 蘇骨 등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략 上記의 記錄 內容을 보면

魏書 高句麗傳에서는 머리에 折風을 썼고 그 形이 辯과 같다. 그리고 옆에 鳥羽를 끼웠다.

南齊書 高麗國傳에서는 冠에 折風이 있고 이것을 幘이라 한다. 옛날 辯의 遺像이다 라고 했다.

三國志 魏書 高句麗傳에서는 머리에 幘을 썼고 幘 같이 前後가 없다. 그리고 小加는 折風을 썼고 그 형태는 辯과 같다.

上同書 異域傳 高麗條에서는 冠을 蘇骨이라 하였고 비단인 紫羅를 많이 사용했다. 金銀을 장식하고 品位가 있는 官은 鳥羽 二개를 그 위에 끼웠다.

隋書 高麗傳에서는 사람은 모두 冠을 사용하는데 使人은 鳥羽를 끼웠다. 貴人冠은 비단 紫羅를 쓰고 金銀으로 裝飾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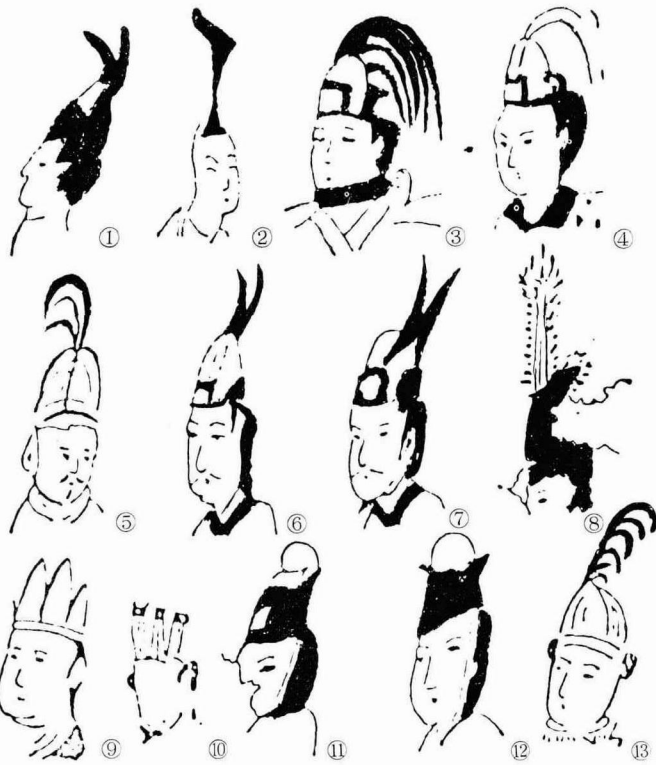
北史 高句麗傳에서는 사람은 모두 折風을 썼는데 그 形이 辯과 같고 士人이면 鳥羽를 끼웠고 貴人의 冠을 蘇骨이라 했다.

舊唐書 高麗傳에서는 王은 五綵와 白羅로 冠을 만들었고 官의 貴한者는 青羅로 冠을 만들었고 그 다음은 緋羅로 冠을 만들었으며 鳥羽 二개를 끼웠다.

林下筆記에서는 折風은 東國의 笠子라고 되는 바 高句麗의 冠은 辯, 幘, 鳥羽插飾, 蘇骨 등이고 王은 白羅冠, 貴人 등은 青羅冠, 그 다음 계급에 속하는 士人은 검붉은 緋羅冠 有品者와 平民의 鳥羽를 꽂은 관 등의 손서로 엄격한 신분과 계급적인 차이에서 사용되거나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高句麗 前期 古墳에서 부터 後期古墳에 이르기 까지 壁畫에 나타난 人物들에 사용하고 있는(插圖四, 五) 이상의 冠帽形을 살펴보면 역시 幘, 辯, 鳥羽插飾冠, 蘇羅冠, 黑羅冠, 三山冠, 冕旒冠, 折風 등이 무수히 보이고 옛 기록과 일치함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

은 前期 古墳의 壁畫에 나타난 服飾은 中國 風의 服飾을 많이 따르고 있고 上記 열거한 南齊書를 비롯한 古文獻 記錄 자체에도 三國志 魏志 東夷傳의 高句麗條의 記錄에 의해 거의의 답습 내지 그 내용이 大同小異 하게 記錄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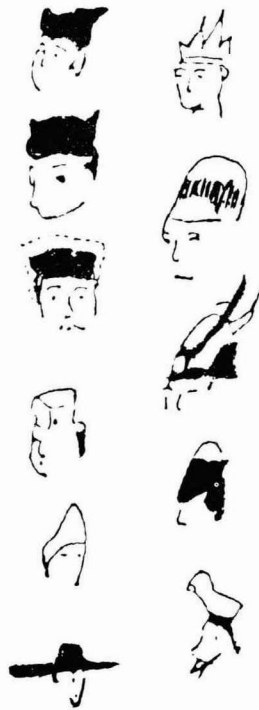


- ① 鎧馬塚·鳥翼冠
- ② 上 同
- ③ 舞蹈塚·鳥羽冠
- ④ 上 同
- ⑤ 龜神塚의 鳥羽冠
- ⑥ 雙楹塚의 鳥羽冠
- ⑦ 雙楹塚의 鳥羽冠
- ⑧ 鎧馬塚鳥羽冠
- ⑨ 龜神塚三山冠
- ⑩ 上 同
- ⑪ 大安里 1 號墳折風
- ⑫ 舞蹈塚의 折風
- ⑬ 龜神塚의 鳥羽冠

插圖 4. 高句麗壁畫中 冠帽의 여러 例

고 있다.
平壤으로 遷도한 이후 高句麗에서 金屬製王冠과 기타 이에 준하는 金屬制冠形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현금까지 高句麗 古墳 內에서 新羅金冠과 같이 확실한 遺物이 일괄 출토되지 않았을 뿐 古文獻의 記錄과는 달리 어떠한 형태의 金屬製로 된 冠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冠形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바이다.

高句麗가 平壤으로 遷도한 이후인 五세기~七세기 까지 이르는 그 時代의 社會上이나 高句麗人의 풍습과 복식 그리고 王宮에서의 생활관습과 禮式에 이용되었던 기구 등과 복식 등에 대하여는 일체 보이지 않고 있다.



- 一幀 } 安岳 3 號墳壁畫中人物圖
- 一幀 } 安岳 3 號墳壁畫中人物圖
- 一黑羅冠 } 安岳 3 號墳壁畫中人物圖
- 一白羅冠 } 舞蹈塚壁畫中人物圖
- 一幀 } 舞蹈塚壁畫中人物圖
- 一병거지形帽子 } 龜神塚壁畫中人物圖
- 一三山冠 } 龜神塚壁畫中人物圖
- 一蘇骨冠 } 雙楹塚壁畫中人物圖
- 一鳥翼冠(折風) } 雙楹塚壁畫中人物圖
- 一幀-大安里 1 號墳壁畫中 人物圖
- 一幀-一角塚壁畫中 人物圖

插圖 5. 高句麗壁畫中 冠帽의 여러 例

(註)

① 「高句麗文化」第二節 彫刻과 工藝 二…工藝 P, 145…이 금동판 뒤에는 같은 형태의 나무판을 뒀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금동판과 나무판 사이에 딱정벌레의 나뭇잎을 잘라 금속색의 바탕을 만들어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금동판이 두드러지게 한 세련된 솜씨다.

② 三上次男：「世界美術全集」一八卷 角川書店刊(一九六八、) P, 二二二～二二三…金銅透彫雲鳥 모양의 金具…平安南道 中和郡 眞坡里 一號墳의 石室 丙에서 발견된 정교 화려한 透彫金具이다. 원래는 동형의 두꺼운 판위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안다. 이것은 被葬者와 더불어 사용되던 頭枕의 양면에 장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透彫彫刻方式은 中國 六朝時代의 공예 기술을 영향받은 것 같고 중앙의 圓圈 밑에는 絹布를 붙였던 흔적이 있다. P, 二二二…中央의 三足鳥를 太陽을 상징하는 까마귀로도 생각한다.

③ 金元龍：「韓國美術史」汎文社刊(一九六八、四) P, 六四에서 透刻龍鳳紋金銅冠形裝飾이라 命名하고 그 내용을 보면 透刻金銅를 二개를 맞붙여 帽形을 만들고 그를 한 복판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三足鳥를 珠紋帶 圓形안에 두고 상부에는 鳳凰, 하부에는 龍 二마리를 각각 배치하고 있다. 여러 동물들을 제 한된 공간안에 도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조금도 부자유 하거나 여지가 없고 유려하면서도 圭角이 있고 세련되면서도 힘이 넘쳐흐르는 이 透刻紋은 高句麗 工人들의 기술을 십이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 透彫紋의 背地에는 남청색의 비단벌레 날개를 붙여 금속을 더 찬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④ 秦弘燮：「韓國金屬工藝」一志社刊(一九八〇、二、一五) P, 一〇～一一에서 金銅透刻龍鳳紋冠形裝飾이라 命名하고 그 내용을 보면 이 裝飾은 비행기의 尾翼같은 透刻金板을 좌우에서 붙여서 모자같은 형태를 만들었다. 중앙에는 連珠를 돌린 원속에 太陽을 상징하는 三足鳥를, 밑에 용 二마리를, 그리고 남은 공간에는 雲氣紋 같은 무늬를 각각 透刻하여 배치하였다. 특히 透刻 모양 뒤에는 비단 벌레 날개를 붙여서 文樣에 도금된 금빛과 함께 영롱한 오색의 빛을 내고 있다.

⑤ 金廷鶴編：「韓國의 考古學」河出書房新社刊(一九七二、八) P, 二四六 金屬工藝中 P, 二五七～二五八에서 李殷昌氏는 金銅透彫玉虫羽飾金具로 命名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이 透彫金具는 길고 직선상으로 된 金銅板에 半圓形과 狹은 직기한 透彫部를 만들고 있고 外形에 연해서 珠紋帶를 全面에 透彫

로 表現하고 있고 그 圖案은 중앙에 連珠紋帶를 나타내고 圓圈 丙에는 양쪽 날개를 펼친 三足鳥를 透彫飾으로 나타내고 그 주변에 세밀한 기법에 鳳凰, 蟠龍과 화려한 流雲을 배치했다.

그리고 金銅板의 측면에는 세잔한 透彫에 波狀雲紋을 附飾하였다. 주변의 珠紋帶 밑에는 玉虫 날개를 침부한 것이 잔존해 있는 바 이 용도는 冠飾金具로 보는 說도 있고 형태로 보아 頭枕 양쪽에 장식한 金具라는 說도 있다.

이것이 대한 진부가 판명되지 않고 있으나 후자이지 않겠는가. 중앙에 三足鳥는 태양을 나타내는 새로서 國王의 권위를 표현하는 것과 또한 國王의 머리부분에 해당되는 裝飾金具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韓國民族은 太陽神을 숭배하는 민족인 바 그 뜻이 있다. 이 透彫技法은 中國의 六朝樣式이라고 본다.

「朝鮮古文化綜鑑」第四卷 養總社刊(一九六八、五、二〇) P, 一三～二四에서：眞坡里 一號墳 石室 美道部分에서 발견된 당대의 희귀한 透彫의 우수한 金具로서 동시에 심하게 결손된 동형의 透彫金具 一部가 잔존하여 있었다.

⑥ 註 3과 同.

⑦ 「朝鮮文化史」上卷 三國의 文化 第四節 工藝 P, 九一 朝鮮文化史刊行會刊(一九六六、七、二五)。日像流雲紋透彫裝飾의 金銅製冠帽의 단편에서 太陽과 구름의 紋樣을 透刻한 金銅製冠帽의 단편으로 그 모양이 Heati 形을 半分한 형태이고 폭이 二.5cm 중앙부에는 三重의 원을 만들어 그곳에 太陽을 상징하는 三足鳥를 일차게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중심해서 윗쪽에는 새의 형태를, 左右에는 어떤 종류의 동물들을 나타내고, 그 전면에는 불타오르는 듯한 형태의 리드미칼한 구름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⑧ 「朝鮮考古學概論」第一節 生産技術과 工藝의 發展 二、金屬加工技術의 發展의 二項 金、銀、銅의 세공기술과 透刻技術의 發展 P, 一七八에서…金銅透刻製品은 金銅透刻技術의 높이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⑨ 前掲書 P, 一七八～一七九에서는 金銅透刻製品을 高句麗冠으로 취급했다. 高句麗의 文化 P, 一四五에서는 金銅太陽形透彫紋裝飾品으로 命名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밑은 直線이고 위는 弧線을 절반 잘라 한쪽으로 조금 기울여 드린 것 같이 생겼다. 중앙에는 드문드문 구슬을 박은 두점의 동그라미 테속에 태양을 상징하는 세발까마귀를 표현하였고 그 테두리에는 불꽃

비슷한 구름무늬 속에는 새 같은 것도 보인다. 테두리에는 넓고 좁은 두 겹의 테를 두르고 그 사이에 구슬을 넣었으며 판의 측면에도 여기에 어울리게 흐르는 구름무늬를 넣어 새겼다. 무늬들은 모두 정교롭게 치밀하여 유창한 흐름을 보여 준다. 이 금동판 뒤에는 같은 형태의 나무판을 댄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금동판과 나무판 사이에 딱정벌레의 나래를 깔아 금록색의 바탕을 만들어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금동판이 두드러지게 한 세련된 솜씨다. 딱정벌레의 나래를 장식에 쓰는 수법은 당시 우리나라의 고유한 장식수법으로서 신라금판 무덤에서 나온 마구에도 보이며 백제의 공예가가 만들어준 일 본 법률사의 불감에도 보인다.

⑩ 「韓國美術全集」二卷 同和出版公社刊(一九七五、四) P、一五五 圖版解說에서는 金銅透刻金具로 命名하였고 그 內容을 보면 眞坡里一號墳 石室의 羨道部에서 출토된 透刻裝飾金具이다. 一見 冠形 같은 모습의 半球狀으로 밑에 細長한 띠를 들었으며 外形을 따라서 珠紋帶로 장식하였다. 그 內部의 上部에는 鳳凰, 下部에는 龍 모양의 渦雲紋을 透彫하였다. 한편 金具의 중앙부분에 띠와 똑 같은 珠紋帶로 장식된 圓形의 장식이 있으며 원형 내부에는 양 날개를 위로 뻗고 다리가 三개인 태양을 상징하는 三足鳥를 透彫하였다. 紋樣 全體가 유려하면서도 세련되었고 主角이 있으면서도 힘이 넘쳐 흐른다. 이 透彫紋의 背地에는 藍靑色의 비단벌레의 날개를 붙여 金具를 더 찬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金冠塚遺物과 日本의 玉虫厨子에서도 볼 수 있다. 이 金具의 용도는 확실하지 않는다.

- ⑪ 黃近根 · 「韓國裝身具史」、瑞文堂刊(一九七二、九) P七七 高句麗의 裝身具一項에서 透刻龍鳳紋金銅冠形으로 名稱을 밝힌다.
- ⑫ 金元龍 · 「韓國考古學概說」、一志社刊(一九七三、六、一五) P、一一五、三 國古墳文化中 高句麗關係와 金元龍著 「韓國壁畫古墳」、一志社刊(一九八〇、五、五)에 의한 高句麗古墳編年에 의한 것임.
- ⑬ 孫景穗 · 「梨大史苑」第四輯(一九六二) 韓國二支生肖의 研究
- ⑭ 東明王과 그 附近의 遺蹟(一九七三、一一、三〇)刊) P P、九八~一〇〇에서 반원형의 금동장식품이라고 命名하였으며 그 內容을 보면 반원형의 금동장식품은 제 一六호 분에서 심히 파손된 것 二개가 나왔다. 이것은 얇은 청동판을 반원형으로 만들고 그 안을 불꽃무늬로 정교하게 투각한 것인데 테두리에는 나무를 대었다. 나무로 만든 그 부분은 일부씩었고 청동투각 부분은

심히 산화되어 그 일부만 남아 있다. 청동투각한 부분은 전부 도금하였다. 현재 남은 부분은 밑변의 길이 一一·三cm, 제일 높은 원형부분이 五·九cm, 테두리의 나무로 만든 부분의 두께는 八mm이다.

⑮ 三上次男 · 「世界美術全集」一八卷、角川書店刊(一九六八)、P P、二二二~二二三의 圖版解說에서 頭枕의 양측 裝飾用의 金具로 보고 있고 李殷昌氏는 韓國의 考古學 P P、二五七~二五八에서 본 裝飾金具에 대해 역시 頭枕 양측에 장식한 金具라는 說에 등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민족은 大陽神을 숭배하는 민족인 바 太陽鳥의 지킴과 같이 古墳의 被葬者의 영혼을 안이하는데 그곳이 있다 하였다.

⑯ 前掲書 P P、二二二~二二三의 圖版解說에서는 六세기 것으로 보고 있으나 金元龍著 「韓國美術史」와 秦弘燮著 「韓國美術全集」에서는 七세기 전반기로 보고 있다.

⑰ 「朝鮮文化史」上卷、朝鮮文化史刊行會刊(一九六六、七、二五) 三國의 美術第四節 工藝 P、九一

⑱ 秦弘燮 · 「韓國金屬工藝」一志社刊(一九八〇、二二五) P、一一一、

⑲ 「朝鮮文化史」上卷 三國의 文化 第四節 工藝 朝鮮文化史刊行會刊(一九六六、七、二五) P、九一

⑳ 「高句麗의 文化」、圖版五二 名稱.

㉑ 金元龍 · 「韓國美術小史」 P、七二.

㉒ 「高句麗의 文化」 P、一七九、圖版 一一一

㉓ 一九八〇、五、二七 日本 毎日신문 網于善紋 · 高句麗古墳에서 보이는 佛敎壁畫

㉔ 金基雄 · 「朝鮮半島의 壁畫古墳」、六興出版社刊(一九八〇、四、二六) 高句麗壁畫古墳 P、一五三 참조.

㉕ 松原三郎 · 「中國佛敎彫刻史研究」吉川弘文館刊(一九六一、一、二〇) 참조. (文化財研究所)